

임실 500만 관광시대 꿈꾼다

전북연구원과 종합개발 사업구체화... 중장기 전략 논의

임실군이 500만 관광시대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향후 10년 내 관광객 500만 달성을 목표로 한 중장기 관광종합개발 수립을 위해 전문 연구조직과 함께하는 합동 워크숍을 열었다.

충남 보령시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전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은 관광종합개발신규 발굴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 국가예산 확보 대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열었다.

각 부서별 실무공무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향후 10년 안에 임실군 관광객 500만 달성을 목표로 준비하는 '임실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과 연계, 전북연구원 전문가들과의 자문과 토론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토론은 그동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도출한 '국민안전교육 테마파크 조성' 등 신규 발굴한 38개 사업에 대해서 분인토의를 통해 전략사업을 구체화하고, 사업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환경원 정책연구관의 '문재인 정부 지역발전정책과 지자체 대응전략' 특강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실무진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도 마련됐다.

군은 전체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와 국민관광지로 잘 알려진 사선대, 임실군의 최고 브랜드이자 관광 일번지인 치즈테마파크, 고려와 조선의 개국설화를 품은 성수산, 천만 반려동물 시대에 각광받는 오수의견공원 등을 중심으로 한 관광개발 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워크숍은 이들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해 임실N치즈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수시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관광메가로 임실을 이끌며, 10년 내에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야심찬 계획 속에 마련됐다.

최정규 기획감사실장은 "관광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라며 "워크숍을 통해 우리만의 특화되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임실하면 관광이 떠오를 수 있도록 전국적인 관광메가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양성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선진지 견학 등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임실=진종영 기자

남원시, 폭염 대비로 시민 안전확보

시가지 20개소 그늘막 설치·버스 승강장 얼음 비치 등

남원시는, 예년보다 빠르게 무더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8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총력을 기울인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폭염 발생 빈도 및 강도의 증가에 따라, 2016년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올해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에 대비해 △폭염 상황관리체계 구축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주요 도로변 살수작업 실시 △시민 다중이용시설 얼음비치 △폭염 피해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계획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과 냉방기 일제 점검 등으로 선제적 대응하려 한다.

시민보호를 위한 시가지 그늘막 20개소(대형파라솔)설치와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승강장 및 쉼터에 얼음 비치와 남원장남(4일, 9일) 전통시장에서 폭염예방캠페인 전개와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또한,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등 관내 506개소의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및 운영으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영농작업장 및 건설사업장에서 한낮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 휴식시간제(14:00 ~ 17:00)를 운영하도록 홍보하는 등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남원시에서는 지속적인 기상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유지 등을 통해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경찰서 노인대학 교통안전교육

순창경찰서(서장 김태형)는, 지난 1일 순창군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대학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 및 노인 학대를 주제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태형 순창경찰서장이 직접 진행하였고, '서다·보다·걷다'라는 안전보행 3원칙, 야간 보행 시 밝은 옷 입기 등의 노인 교통사고 예방 교육과 노인 학대를 당하거나 목격 시 대처방법 등으로 진행되었다.

김태형 서장은 매년 순창군 관내 교통 사망사고 비율 가운데 특히 65세 이상 노인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간 보행 시 밝은 색 의상 착용과 안전띠 착용을 당부하였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전통시장 버스터미널 앞 비가림 설치

순창군이 전통시장 간이 버스터미널 앞 비가림 설치공사를 추진해 이용객들이 비·눈이 오거나 한 여름에도 불편 없이 버스를 기다릴 수 있게 됐다.

군은 올해 4월초 추가경정예산에 비가림 시설과 버스휴게실 증축(49㎡)·냉·난방기, 안마의자 구입비 등 1억2700만원을 확보했다.

현재 비가림 설치 설계용역을 마쳤고 증축공사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공사는 군민 편의를 위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금년 7월중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에 설치하는 비가림 설치하는 가

로 17m, 세로 5m, 높이 4m로 2천2백만원이 투입된다.

군은 특히 버스휴게실 증축공사(가로 7m, 세로 7m)가 완료되면 여름철에는 냉방기와 안마의자(3대)를 구입 비치하고 겨울이전에 발열벤치 10대를 설치해 버스휴게실 이용객들의 편의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그간 버스터미널 휴게실이 협소하여 밖에서 대기했던 군민들이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면 비나 눈이 올때는 물론, 무더운 한여름에도 그늘막 역할을 해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CCTV 500대 통합관제센터' 24시간 가동

남원시가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16일부터 24시간 시내 전역 구역 구역을 실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여성친화도시, 전국 최고의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는 남원시의 역점사업이다. 남원시는 국비 등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남원시의회 4층에 300㎡ 규모로 CCTV 통합관제센터 시설을 갖췄다.

CCTV통합관제센터에는 CCTV관제실, 종합상황실, 영상분석실, 부대시설 및 통합관제시스템 등이 들어서

있다. 이곳에서는 방범·어린이보호, 재난·재해 예방 등 목적과 기능에 따라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었던 CCTV 500여 대를 통합 운영한다.

또,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위치기반 영상추적, CCTV영상물을 저장·열람·제공해 사건·사고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다.

남원시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시민 12명을 CCTV 모니터링요원으로 위탁 채용해 4개조가 3교대로 24시간 실시간 영상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파격적인 월례조회 눈길

직원 200여명 '문화·소통'... 시낭송·새내기 소감 등 진행

순창군이 기존 월례조회 형식을 탈피한 파격적인 월례조회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군은 지난 1일 3층 회의실에서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소통의 월례조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6월 월례조회는 기존의 훈시 위주에서 벗어나 전 직원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시낭송과 새내기 소감 등을 진행했다.

먼저 평생교육원에서 시낭송을 공부하고 있는 금과보건지소 김경진씨가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 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를 낭송해 잔잔한 감동을 줬다.

특히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애잔한 음악에 맞춰 시낭송을 할 때 월례조회에 참석한 공직자들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다.

김경진씨는 "엄마라는 이름 하나 만으로도 눈물이 난다. 자녀들에게는 잘 해도 부모들에게 전화 한통 하기 어려운데 요즘 현실"이라면서 "오늘 이 시를 듣고 여러분께서도 바로 어머니께 전화라도 해주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군은 지난 1일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소통의 월례조회'를 열었다.

이어 새내기 공무원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하는 시간도 가졌다.농업기술센터 김서현씨와 순창읍 이종호씨가 공직 입문 5개월간 느꼈던 생생한 소감을 전해 신선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종호씨는 "순창읍 환경미화계에 근무하면서 아직은 낮은 시민의식에 실망도 했지만 군민의식

을 바꿔 나가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래 순창의 자랑스런 공무원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혀 박수를 받았다.

장명균 군수 권한대행은 "따뜻한 월례조회 이미지를 벗어나 직원들과 더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변화를 기했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